

반도체 질주에 코스피 3700 돌파… 13만전자·56만닉스 눈앞

〈KB증권 삼성 목표가 13만원〉

〈한국투자 SK 목표가 56만원〉

업계, 반도체 상승국면 시작 전망
올해 삼성 주가 84%, SK 167% ↑
시총은 각각 570조, 330조 넘어가
KB·NH 등 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뜻이 ‘삼만전자(삼성전자 3만원)’에서 이룬 것과 같이 ‘십만전자’도 이루어지리라.”

“와 삼전이 9.6만원!!! 10만전자도 거뜬하겠는데요.”

“용광로를 보는 것 같네요. 구조대 오면 바로 나가야지 했는데, 막상 구조대가 오니 ‘좀 더 버텨볼까’ 이라고 있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10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드디어 ‘삼기도문(삼성전자+기도문)’이 통했다”는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다. ‘삼기도문’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 염원을 담아 주기도문을 패러디해 투자자들이 쓰는 말이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반도체의 힘으로 3700 돌파에 성공했다. 반도체 주가가 치솟자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지금 팔지, 더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시장에서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어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예고되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이 되자 기뻐하는 투자자들.

이제 시작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84.02%,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67.68%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기준 시가총액 570조원(우선주 제외), SK하이닉스는 시총 330조원을 넘겼다.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질주는 글로벌 AI 투자 광풍의 영향이다. 추석 황금연휴 휴장기간 동안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는 신고가(192.57달러)를 경신하며 시총이 4조6794억 달러(약 6651조원)까지 성장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이 아랍에미리트(UA

E)에 대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을 허가하며 AI 투자 전쟁에 중동의 큰손도 참전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도 급등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AMD로부터 AI 반도체를 공급받는 등의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AMD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다.

막대한 AI 투자가 이어지며 HBM 등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플래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진 점도 반도체 몸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 1일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의 D램 공급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능력의 약 75%로 추산된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대규모 투자가 결합해 상승 국면이 예고된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8일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1000원, 48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모건스탠리가 ‘겨울이 곧 닥친다’(지난해 9월), ‘빙산이 온다’(올 4월)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를 경고해 ‘반도체 저수사자’로 불렸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나섰다. 현재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KB증권은 ‘13만 전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는 14곳에 달한다. 미래에셋증권(11만1000원→12만7000원), 한국투자증권(9만5000원→12만원), NH투자증권(9만4000원→11만5000원), 키움증권(10만5000원→12만원), 하나증권(9만5000원→11만5000원)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56만 닉스’(SK하

이닉스)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은 처음으로 21조원을 돌파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다. 이들 종목의 총 가치는 올해 1월 2일 11조9099억원에서 출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4일 14조2852억원으로 상승한 뒤, 16일 기준 21조5836억원을 찍었다. 삼성전자 덕분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4일 5조6305억원에서 9조5173억원으로 69% 급등했다.

다만 글로벌 AI 랠리에도 ‘거품론’이 제기되는 상황은 부담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려한다”며 “AI는 진짜이며 총량적으로 보면 성과를 내겠지만 모든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영국 은행(BOE)도 증시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반도체로의 몰림 현상과 높은 환율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권사, 기업금융·혁신투자 중심 체질개선

금융위,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출범
NH투자 “모험자본, 본질 살려야”
미래에셋 “투자중심 금융 전환”
한국투자 “발행어음 토대 IMA 도전”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하자, 증권사들도 부동산 중심의 단기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과 혁신 투자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세제·회계·건전성 규제 등 금융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생산적 금융을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의제로 구체화한 첫 공식 회의로, 이후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분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당국의 기조변화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반성’과 ‘전환’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PF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기업금융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모험자본 투자라는 금융의 본질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H투자증권의 IB 부문 수익 중 PF가 40%를 웃돌았고, 모험자본 비중은 총 자산의 2%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산업을 키우는 금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역시 ‘대출 중심의 금융’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금융기관이 대출로 돈을 버는 구조는 잘못됐다. (나도) 반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생산적 금융 기조는 올바른 방향이며, 미래에셋도 투자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증권·보험을 아우르는 미래에셋의 구조적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간 신사업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대 대형사는 최근 금융위에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신청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만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운용 경험을 토대로 IMA에 도전 중이며, 미래에

셋증권은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은행계 증권사로서의 자본 안정성을 앞세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인가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벤처·혁신기업에 민간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도 입법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여야가 정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형 성장펀드를 운용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 역시 혁신기업 성장에 간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IMA와 BDC가 함께 작동하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생태계가 한층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DC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회수 시장(엑시트) 활성화와 운용사 전문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정윤 기자

금 ETF 7종 한달 수익률 20% 상승

‘ACE KRX금현물’ 29% 상승률 1위

금값이 치솟자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균 수익률도 최근 한 달간에 만 20%를 넘어섰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 관련 ETF로 분류되는 상품 7종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이 20.6%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ACE KRX금현물’로 29.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간발의 차이로 ‘TIGER KRX금현물’가 28.9%로 그다음을 이었다.

‘SOL 국제금’ (18.0%)과 ‘KODEX 금액티브’ (17.7%) 등도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다.

금 ETF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지만 개미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뜨겁다. 최근 한 주간(지난 13~17일) 개인 투자자들은 ‘ACE KRX금현물’을 1290억원어치 사들였다. 순매수 3위다.

이 외에도 ‘TIGER KRX금현물’ (5위·990억원), ‘KODEX 금액티브’ (6위·970억원) 등 10위권 내 금 관련 ETF 상품이 3개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2000 달러 수준이었던 금 현물 가격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4318.75달러)를 또다시 새로 쓴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투증권, 퇴직연금 ETF 10개월간 1.6조 ↑

DC·IRP 계좌 적립금 11.5조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금액이 약 10개월 동안 1조6359억원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말 8조4000억원이던 DC·IRP 계좌 적립금은 이달 1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ETF 투자금액은 1조7486억원에서 3조3845억원으로 약 2배(93.6%) 증가했으며, 계좌 내 ETF 비중도 20.8%에서 29.4%로 8.6%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ETF 직접투자 확산은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주요국 대표지수

및 성장 테마형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50대 가입자층이 ETF 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미국 S&P500·나스닥100 등 대표 지수형 ETF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AI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 점도 ETF 잔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어서는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졌다. 중국 및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늘었고, 차이나 테크·AI·휴머노이드 ETF뿐 아니라 국내 조선·방산·반도체 섹터 ETF의 잔고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